



제53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4월 12일)

## 나전칠기螺鈿漆器 제작 기법

김경수 | 204호 목칠공예실 | 18:00~18:30

나전칠기는 전복껍질(나전)과 옷나무에서 채취한 천연도료인 옷칠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나전의 영롱한 빛과 옷칠의 검은 빛의 대비를 이용하여 장식한 가구, 함 등을 일컫는 말이다. 나전칠기의 정형화된 제작기법은 바탕이 되는 목재 틀 위에 천을 바르고, 옷칠 한 뒤 나전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골白骨 만들기: 목재로 만든 기본 틀을 백골이라 부르며, 피나무, 은행나무 등 결이 고운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속 재료라서 문양이 아름다운 목재가 쓰이는 예는 드물다.
- 심 바르기: 백골을 보강하기 위해 표면에 천이나 종이를 바르는 과정이다. 보통의 경우 삼베를 사용하지만 모시나 면, 비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눈 메우기: 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옷칠에 골분骨粉, 토분土粉 등을 혼합하여 천위에 바르고 갈아내어 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 문양장식하기: 나전을 작게 오려 문양을 장식한다. 이외에도 대모玳瑁(바다거북의 등 껍질), 동선 등 다양한 재료로 문양을 만든다.
- 골해 바르기: 옷칠에 골분을 섞은 것을 골해(혹은 고래)라 부르며, 나전 문양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 바르고 옷칠이 굳은 뒤에 갈아내고 다시 바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문양과 나머지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 상칠 하기: 광택이 나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체에 옷칠하고 굳은 뒤 나전위에 남은 칠만 제거해 문양을 드러내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제작기법을 설명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중간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도 한다.

제53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4월 12일)

## 오타니 탐험대의 문화재 수집

김혜원 | 307호 중앙아시아실 | 18:00~18:30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본의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가 조직한 탐험대가 20세기 초에 수집한 소위 ‘오타니 컬렉션’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오타니 고즈이는 교토(京都)에 위치한 정토진종淨土眞宗 본원사과本願寺派의 본산本山인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문주門主였다. 앞서 활동을 시작한 유럽의 중앙아시아 탐험대와는 달리 오타니는 불교도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주목하며, 오타니 탐험대의 중국령 중앙아시아, 티베트, 몽골 등 여러 지역에서 조사를 벌였다.

오타니 탐험대는 중국령 중앙아시아, 즉 신장(新疆)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신장 조사는 1902-1903년, 1908-1909년, 1910-1914년의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 탐험은 와타나베 텃신(渡邊哲信, 1874-1957)과 호리 마스오(堀賢雄, 1880-1949), 제2차는 노무라 에이자부로(野村榮三郎, 1880-1936)와 다치바나 즈이초(橘瑞超, 1890-1968), 제3차는 다치바나 즈이초와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 1885-1978)이 대원으로 참여했다.

오타니 탐험대의 문화재 수집 활동은 대원들이 남긴 일지日誌와 동시대에 활동한 탐험가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유적에서 발굴, 조사를 수행하면서 문화재를 수습하기도 했지만, 현지인에게 유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무라는 현지인 인부와 함께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벽화를 직접 절취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발해진 신장 지역의 고고학 탐험으로 이 지역 출토 문화재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소위 ‘보물찾기’가 활발해졌고, 이들이 수집한 고대 유물은 외지에서 온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타니 탐험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매매를 통해 상당량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기록이 확인되는 사례로 영국의 중앙아시아탐험대를 이끈 아우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과 차르클리크 지역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이에 의하면 다치바나가 메르데크-샤르, 차르클리크 등 누란樓蘭의 여러 지역에서 현지인에게 문화재를 구입했다.



그림1. 오타니 탐험대 제3차 신장 조사 장면

## 환국의 틈새에 차린 잔치, <기로연회도>

이재호 | 202호 회화실 | 19:00~19:30

두 폭의 길게그림이 한 화면으로 이어져 있다. 그림 속에는 저택을 배경으로 아홉 명의 남자가 각자 잔칫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있다. 이 <기로연회도耆老宴會圖>는 각각 <삼학사도三學士圖>(본관11415), <사연도賜宴圖>(본관11596)라는 이름으로 1929년과 그 이듬해에 각각 구입되었는데, 권대운權大運(1612-1699)의 후손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한 <기로연회도> 8폭 병풍의 제4, 5폭과 일치한다. 원래 병풍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들 가운데 두 폭이 다른 경로로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림 속 주인공들은 왜 모임을 마련했으며 모임을 기념하는 병풍까지 만들어 공유했을까? 이옥李沃(1641-1698)은 「사로연회병서四老宴會屏序」라는 글을 남겨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희빈 장씨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는데 반대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되찾아왔다. 1680년 경신환국 때 실각했던 남인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을 탄압해 복수에 성공하였다. 숙종은 권대운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궤장几杖을 하사해 기로대신耆老大臣으로 우대하였다. 이를 기념하는 잔치가 남산 자락에 위치한 권대운의 집에서 열렸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1617-1704), 예조판서 이관징李觀徵(1618-1695), 공조판서 오정위吳挺緯(1616-1692)는 잔치의 주빈이었으며 그 아들인 권규權珪(1648-1722), 목임일睦林一(1646-?), 이옥, 오시만吳始萬(1647-1700)과 권대운의 손자 권중경權重經(1658-1728)이 그 뒤에 배석하였다. 도홍색 관복 차림으로 늘어앉은 인물들은 초상화와 같이 엄숙하고, 당풍唐風 복색의 여인들은 술시중으로 분주하다. 태호석太湖石이 놓인 정원과 탁자에 차려진 고동기古銅器는 10년 만에 되찾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갑술환국이 일어나 남인은 몰락했다. 그림 속 인물들은 관작을 잃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최연소자인 권중경은 봉당과 가문의 쇠락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고 이 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로연회도>는 권세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그린 그림이지만 무상한 역사의 증거로 남게 되었다.



그림1. <권대운기로연회도>, 1689년경, 비단에 색, 199×48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제53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4월 12일)

## 대한제국기 관인과 궁내부의 역할

서윤희 | 120호 대한제국실 | 19:00~19:30

고종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부국강병 정책을 강구하여 친위세력과 궁내부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실시해나갔다. 먼저, 궁내부의 내장원을 통해 황실재정을 크게 확충하였고, 국가재정의 집행에서도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호구조사의 실시, 토지조사의 실시, 근대적 화폐제도의 모색, 우체·전신사업의 실시, 전차·전기사업의 실시, 서북철도의 부설, 서울의 신도시 건설, 산업진흥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궁내부는 막대한 황실재산을 바탕으로 각종 식산흥업정책을 추진하였다. 통신사, 철도원, 광학국鑛學局, 수륜원水輪院 등 방대한 산하기구들을 거느리고 외국인 기술자들을 데려와 광산 경영에 직접 착수하거나 자주적 철도 부설을 추진하였다. 황제가 직접 투자하여 전차·전기사업을 추진하여 1899년에는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전차 운행을 시작하였다. 사업들은 자본금의 부족으로 러일전쟁 발발 후 중단되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가버렸다.

우리 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이관된 조선과 대한제국기 관인 115점이 전하는데 대부분이 대한제국기 주요 관서官署 및 관서 책임자의 도장이다. 특히 궁내부의 봉세관·독쇄관·수조관 등 각종 잡세를 거두어들인 관직의 도장이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 현존하는 관인을 통해 궁내부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권력 편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관제개편 뒤 만들어진 근대 관인의 특징은 첫째, 크기가 조선시대에 비해 점차 작아지고, 둘째, 조선시대 공문서에 기록했던 관원의 서명 대신 관장官章(관서 책임자 도장)이 사용되어 관장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관인의 서체는 거의 구첩전九疊篆을 사용하였으나 근대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소전小篆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1. 궁내부 현판, 48.3x123.0cm



그림2. 대한제국기 관인